

“진짜가 나타났다” ‘와이키키2’, 강력해진 청춘 에너지



더 강력해진 청춘 에너지와 '별'의 웃음을 장착했다. 지난 25일 처음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오라차차 와이키키2' (극본 김기호 송지은 송미소 서동범, 연출 이창민)에서는 바람 잘 날 없는 '와이키키' 청춘들의 잔재 나지 만 유쾌한 웃음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다시 시작된 '와이키키' 청춘들의 파란만장한 생애

바람 잘 날 없는 청춘들의 유쾌한 웃음 펼쳐져

만에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연애도, 일도, 꿈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 청춘이었다. 유성우가 좋아하는 날 소원을 빌어보지만 하늘에서 돈바리가 내리기는커녕 유성이 떨어지는 날바라기를 맞았다. 바닥 짚고 올라갈 일만 남은 줄 알았건만, 이제는 바닥까지 뚫려버린 세 친구의 '와이키키' 사수기가 폭소를 자아냈다. 우식은 건물주 정숙(전수경)에게 바닥이 뚫린 사실을 들리지 않으려고 가짜 사람 고백에 이어 놀이 공원 데이트까지 감행했고, 준기와 기봉은 단역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하지만 사고유발자답게 촬영은 엉망진창으로 끝났고, 현장에서 나오까지 된 두 사람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하산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화장실이 급해진 기봉이 하필이면 '침묵의 공공침묵' 게임 중이던 캠핑장 이용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며 어쩔만 굴욕을 맛

다. 축구를 부탁받은 우식은 그곳이 첫사랑 한수연(문기영)의 결혼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종이봉투로 얼굴을 감춘 우식은 화장시절 수연에게 불러주기로 약속했던 노래로 눈물 어린 축하를 했다. 그 시각, 운석을 팔아 20억을 벌여보겠다는 원대한 꿈에 부풀어 있던 준기와 기봉도 우연히 수연의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게 됐다. 첫사랑과 뜻하지 않은 재회도 잠시, 수연 아버지의 회사 부도 소식이 전해지며 결혼식은 한순간 난장판으로 변했다. 결국 운석도 잃고 20억의 꿈도 산산 조각난 채로 레베카에 몸을 싣고 돌아온 세 사람. 이상한 김세에 '레베카' 트렁크를 열어본 세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수연이 레베카에 숨어 있었던 것.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청춘 3

인방과 첫사랑 수연의 깜짝 재회는 궁극적으로 더했다. 강력한 '별'의 웃음을 장착하고 돌아온 '와이키키'는 명불허전이었다. 질 세 없이 터지는 예측 불가한 에피소드와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들의 열연은 웃음을 안겼다. 과거 변신한 김신호, '와이키키' 공식 웃음치트키다운 활약을 선보인 이이경, 반전매력으로 '배꼽스틸러' 활약을 특출한 한 신현수까지 세 사람의 절묘한 코믹 시너지는 기대 이상이었다. 어느 하나 평범하지 않은 이들의 고군분투는 청춘의 '웃픈 현실'이 담겨있었다. "나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 아직 포기할 뻔 아니었잖아?"라며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들의 모습은 유쾌했다. 이날 방송된 '오라차차 와이키키 2'는 전국 기준 2.1%, 수도권 기준 2.3%(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출발했다.



태연·장범준, 솔로로서 더 빛나는 음악

가수 태연(소녀시대)과 장범준이 차트 2강 구도를 이뤘다. 그룹의 멤버가 아닌 솔로로서 더 빛나는 두 사람이다. 먼저 태연의 기세가 조금 더 막강하다. 태연의 신곡 '사계'는 26일 지니, 박스, 멜론 등 음원사이트 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네이버 뮤직에서는 12위에 그쳤다. 태연은 소녀시대 메인보컬 시절부터 그만의 끈적한 보컬을 앞세워 높은 고음까지 소화하며 남다른 실력을 드러내 왔다. 앞서 '들리나요', 'rain' 등으로 진지한 풍의 발라드 넘버를 들려줬던 태연은 이번 곡을 통해 장르 스펙트럼을 넓혔다. '사계'는 어쿠스틱 기타 중심의 약기 구성이 돋보이는 얼터너티브 팝이다. 사랑의 심리를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표현한 가사와 태연의 감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졌다. 대부분 가수들이 봄을 맞이해 따뜻하거나 풋풋한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냈다면, 태연은 사계절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줬다. 태연은 이번 신곡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발라드는 물론 얼터너티브 팝 같은 리드미컬한 느낌의 곡도 소화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늘렸다.

종영 '서울메이트2', 호스트↔게스트 성공적



'서울메이트2'가 다음 시즌을 기대하며 특별한 인사를 전했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서울메이트2'에서는 김숙, 사이니 키, 산디라비 메이트들과 특별한 인사를 나눴다. 이날 키는 메이트들을 위해 SM 사육 투어를 펼쳤다. K-POP 가이드가 된 키는 달력, 여권 케이스, 자석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굿즈를 판매하는 숍부터 SM 소속 가수들이 실제 사용하는 안무 연습실까지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키의 친한 동생들이자 한류 대표 걸그룹 레드벨벳이 파리지엠 메이트들의 일일 멘스 선생님이로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메이트들의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K-POP 댄스 배우기'를 위해 키가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한 것. 레드벨벳을 마주한

메이트들은 한국에서의 가장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날 수강 노래는 '별'이다. 특히 웬디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상세히 춤을 가르쳐 눈길을 모았다. 하지만 너무나 빠른 템포에 여기저기서 막춤이 등장해 폭소를 유발했다. 조이는 프랑스 친구들을 위해 상상을 준비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숙, 산디라비, 김영철도 필리핀 쌍둥이 자매인 타샤, 프랑스와 함께한 필리핀 여행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승이 열대우림 생태공원' 트래킹에 도전했다. 미승이의 하이라이트, 절벽에 진짜 거미줄처럼 해놓은 인증샷 지점에서 겁이 질려 겁에 다다른 김숙과, 겁이 없어도 너무 없는 동생들의 극과 극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서울메이트'는 특별한 호스트와 특별한 이방인의 특별한 여행을 그린 글로벌 케미컬관 홈세어 리얼리티. 앞서 시즌1에서는 호스트로 나선 연예인들과 한국을 찾은 이방인들의 특별한 2박 3일 이야기를 담아 내 호평을 받았다. 시즌2에서는 시즌과 반대로 이기우, 김준호, 김숙이 메이트들의 나라 핀란드와 필리핀으로 떠나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또 홍수현, 키 등 새로운 출연자들이 합류, 이들의 개성이 불어나는 이색 관광 코스가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외국인 메이트들과 한국 스타들의 이색 홈세어를 통해 기존 외국인 예능과는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한 '서울메이트'.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힐링 웃음을 안긴 '서울메이트'의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본다.

'그녀의 사생활', 아이돌 덕후와 까칠남의 로맨스 예고



tvN 새 수목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연출 홍중찬) 극본 김혜영/원작 누나팬닷컴/제작 본팩토리, 스튜디오 드래곤은 직장에선 완벽한 큐레이터지만 알고 보면 아이돌 덕후인 성덕미(박민영 분)가 까칠한 상사 라이언(김재욱 분)과 만나며 벌어지는 본격 덕질 로맨스. 최근 공개된 예고편은 '너 아이돌 좋아하는 여자 큐레이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라는 성덕미의 물음으로 시작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 미술관 큐레이터로서의 물론 아이돌 덕후로서도 남다른 프로 정신을 발휘하는 성덕미의 모습이 펼쳐져 시선을 강탈한다. 오는 4월 10일 첫 방송 예정인

이 같은 성덕미의 이중생활은 스타일 변신으로도 시선을 강탈한다. 화이트 수트 차림의 큐레이터 성덕미가 마치 킬러를 연상케 하는 올 블랙 차림의 프로 덕후로 변신하며 낮과 밤이 다른 완벽한 이중생활을 보여주는 것. 이 밖에도 성덕미는 "직장에서 덕질이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라고 물은 뒤 "난 세상에서 덕후 아웃팅이 제일 무서워"라며 자신이 일코일반인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드러낸다. 이에 성덕미가 완벽히 다른 사람처럼 변신하며 철무침이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극점을 자극한다. 그녀가 하면, 라이언 골드(김재

욱 분)는 범상치 않은 포스를 내뿜어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는 미술관 천재 디렉터로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내다가도 지하실 계단에 서 수많은 인파에 밀려 기겁하는 반전의 코믹 면모로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작품의 제목은 라이언 골드. 완벽한 비올이 특징이죠"라며 자신을 하나의 미술 작품을 묘사하듯 소개해 소개하면, 성덕미에게 "나를 갖고 싶어요?"라고도 발칙으로 묻는 등 남다른 미묘 자 신감을 드러내 웃음을 빵 터지게 한다. 무엇보다 이후 성덕미와 라이언의 만남이 예고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완벽한 이중생활을 펼치고 있는 성덕미가 까칠한 신입관장 라이언 골드에게 정체를 밝히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슬이슬 한 두 사람의 만남에 궁극점이 증폭된다.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음력 2월 21일)

<p>▶ 쥐 직장인 2, 4, 6, 7월생은 자기의 직분에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붉은색 옷이 당신을 돋보이게 함. 자신감 있게 나가면 활용해 볼 것. 기, 자, 천 성씨는 사랑하는 자를 진실로 대하라. 그 사람에게서 멋진 지혜가 생겨 당신은 활력을 얻게 될 듯.</p>	<p>▶ 용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 3, 4, 7, 8월생으로 신혼기간이라면 기다렸던 임신이 될 밤이나 운치 있는 곳으로 분위기를 바꿔볼 것. 단꿈이 영글겠다. 단 먼 곳으로의 이동은 불리. 나, 사, 오 성씨는 지장이 생기면 예정 변경도 필요.</p>	<p>▶ 원숭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겸손하게 여자의 금전을 사용하지 마라. 1, 3, 5, 8월생은 어떠한 식으로든 구설이 생기고 가정의 불화를 막을 수 없을 듯. 그 돈을 갖지 못하면 더 큰 것 잃고 본인의 체면도 땅에 떨어진다.</p>
<p>▶ 돼지 주말이라고 나들이는 생각조차 하지 말 것. 3, 4, 5, 9월생은 이동, 여행운이 좋지 않은 때이니 되도록 집에서 편안히 보내는 것이 좋다. 사, 자, 천 성씨는 건강을 체크해 보도록. 컨디션은 잘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듯.</p>	<p>▶ 닭 급하더라도 매사 절차를 밟아서 처리함이 좋을 듯. 아무리 바빠도 일을 바늘 허리에 매어서 쓸 수는 없지 않은가. 2, 3, 9, 11월생은 마음이 가는 곳 한 두 곳이 아니니 심고 통이 크겠다. 예정문제와 직업변동 생각으로 갈등을 겪는 격.</p>	<p>▶ 양 사랑에 조건이 앞서면 서로가 다들 이기게 마련이다. 무조건적이거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다. 1, 2, 5, 6월생은 점을 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방해자가 생길 듯. 기, 미, 오 성씨는 입맛 없더라도 식사는 꼭 할 것.</p>
<p>▶ 호랑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2, 5, 9, 11월생은 주위사람들에게 찬사를 듣고 도움도 받게. 인간관계의 화합을 중시하여 신뢰를 쌓게 되면 나날이 발전할 수. 기, 미, 오 성씨 직장인은 정보에 귀를 기울여라. 활용을 잘하면 많은 일에 도움을 얻게 될 듯.</p>	<p>▶ 말 생각지 않던 수입이 있을 듯. 그러나 쉽게 들어온 것이라 함부로 돈을 쓰지 말 것. 2, 4, 6, 8월생은 무슨 일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라. 미, 미, 사 성씨에 정은 솔직한 표현만 하면 핑크빛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다.</p>	<p>▶ 개 좋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나가라. 7, 8, 10, 11월생은 서로 이해해야 일이 성사된다. 오늘은 언짢던 것이 풀리는 날이니 입장 바꿔 상대를 생각해 볼 것. 기, 미, 천 성씨 매매나 계약건은 약간 지연되니 기다려야 할 듯. 북, 동쪽이 길한 방향.</p>
<p>▶ 토끼 1, 3, 5, 9월생은 자신의 입장을 잘 알고 성의를 다한다면 즐거움이 있겠다. 본분 이외의 일은 피하라. 분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구설이 따를 수 있음을 알 것. 기, 오, 자 성씨는 부동산 쪽에 좋은 징조가 있다. 상담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날.</p>	<p>▶ 양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심도 강하지만 1, 3, 5, 8월생은 결정적인 때 남보다 늦는 것이 단점이다. 건축업과 제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 있으니 기회를 잘 포착할 것. 미, 미, 미 성씨는 피부질환에 주의하고 지나친 신경은 쓰지 말라.</p>	<p>▶ 돼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가. 1, 3, 5, 11월생은 용서, 원수이들에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가정에 더욱 윤택함이 있겠다. 시계처럼 멀리저리 오가는 방향을 끝내라. 기, 미, 오 성씨는 지출이 커지겠다.</p>